

##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심 의·의 결

2021. 12. 1.

안건번호 2021 - 제 253호

안건명 甲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에 관한 건

조치대상자 甲

의결연월일 2021. 12. 1.

### 주 문

1. 증권선물위원회는 피조치자 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액 : 37,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조치자의 지위

甲은 주식 투자 및 컨설팅 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임

#### 나. 행위사실

甲은 2020.8.31.~2020.9.23. 기간동안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명의로 A사 주식 664,751주를 보유한 사실이 있음

甲은 2020.9.4.~2020.11.19. 기간동안 B사 법인 및 처 乙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여 A사 134,902주를 매수체결하고 142,573주를 매도 체결하는 과정에서 2,732회 단주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2,689회 체결한 사실이 있음

### 2.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8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며, 제429조의2는 동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거 조항>

### ◆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나. 피조치자 행위의 위법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甲은 2020.9.4.~2020.11.19. 기간동안 B사 법인 및 처 乙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여 A사 134,902주를 매수체결하고 142,573주를 매도 체결하는 과정에서 2,732회에 걸쳐 단주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2,689회를 체결시킨 사실이 있음

甲은 혐의 계좌 이외에도 다수의 타인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저축은행, 지은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이용하여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A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A사 주가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었음

단주매매 주문을 통해 매매가 체결될 경우에 장중 주식 매매 호가창에 체결신호가 나타나므로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가 성황을 이루거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甲은 20년 넘게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및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의 실 운영자인 만큼 단주 매매로 일반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3. 처 분

甲의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9조의2, 동 법 시행령 제379조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한다.

#### 가. 과징금 산정기준

甲의 과징금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3.바.(1)에 따라 법 제178조의 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로 기준 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함

#### 나. 부과 비율의 산정

甲의 행위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나.(3)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한 것으로 위반행위 중요도가 '상'에 해당

甲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다.의 상향조정사유 또는 하향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별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음

#### 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상'이고, 상향조정사유 또는 하향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가.(4)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 100분의 125를 곱하여 피조치자 甲에게 37,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4. 결론

피조치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429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12월 1일